

LG-Caltex정유 상호변경 추진

LG 브랜드 사용 유료화 부담 ... 외국기업에 CI 개선안 의뢰

LG-Caltex정유의 상호가 바뀔 것으로 알려졌다.

LG-Caltex정유 여수공장 관계자는 6월21일 “LG 브랜드 소유권자인 지주회사 LG가 2005년부터 브랜드 사용을 유료화함에 따라 2004년 말 이전에 상호를 GS정유 등으로 바꾸기로 최고경영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”고 밝혔다.

또 “공식발표 되지 않아 정확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으나 본사에서 최근 외국 용역회사에 새 상호 선정을 포함한 CI(기업이미지) 개선안을 의뢰해 10월 말께 납품 받기로 했다”고 설명했다.

LG-Caltex정유 측은 현재 상호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브랜드 사용료는 LG와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 LG화학이 매출액의 0.2%를 지급키로 계약한 바 있어 같은 비율이 적용되면 매년 200억원 이상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LG-Caltex정유의 2003년 매출액은 11조654억원이다.

한편, LG-Caltex정유의 상호변경 방침은 LG유통 등 다른 회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.

GL-Caltex정유, LG유통, LG홈쇼핑, LG파워, LG건설 등 5사는 7월부터 지주회사 GS홀딩스에 속하게 돼 LG 그룹에서 분리된다.

<화학저널 2004/06/22>